

No. 2013-07

일본 경제 동향

(Japan Weekly Economic Digest)

2013. 02. 12

- ① 일본경제지표
- ② 주간 경제이슈
: 일본의 경상흑자, 적자화 가능성 예고
- ③ 경제정책동향
- ④ 일본기업동향
- ⑤ 한국관련워치

1 일본경제지표

□ 주요 경제지표

- 엔화의 對미 달러환율이 2012년 10월 엔저로 반전된 이후,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엔저가 가속, 2013년 1월 평균 환율은 89.2엔, 2월 6일은 94엔대까지 하락
- 2012년 수출은 2.7% 감소한 반면, 수입은 3.8%나 증가함에 따라, 사상 최대적자
* 對한국 무역수지 흑자는 21천억엔에서 16.7천억엔으로 축소
- 경상수지는 2012년 11월, 12월 2개월 연속 적자로, 2012년 흑자폭이 대폭 축소

구분	2010	2011	2012	2012						2013
				7	8	9	10	11	12	
실질GDP증가율(연율,%)	3.4	0.3	-	▲ 3.5			-			-
수 출(천억엔)	678	653	(637)	53	50	54	51	50	53	-
수 입(천억엔)	625	697	(707)	58	58	59	57	59	59	-
對한국 수출	54.6	52.1	(49.1)	3.96	3.85	3.98	3.94	3.93	4.35	-
對한국 수입	26.7	32.9	(32.4)	2.78	2.44	2.42	2.70	2.82	2.84	-
직접투자(억달러)	572	1157	-	287			-			-
對한국 투자	11	24	-	4.9			-			-
소비자물가(%)	▲ 0.8	0.0	-	▲ 0.2	0.2	0.2	0.0	▲ 0.3	▲ 0.1	-
실업율(%)	4.9	4.5	-	4.3	4.2	4.2	4.2	4.1	4.2	-
경상수지(천억엔)	166.6	76.2	47	6.3	4.5	5	3.8	▲ 2.2	▲ 2.6	-
엔화 對미달러	85.7	79.1	-	79	78.7	78.2	79	80.9	83.6	89.2
환율 對원화	1321	1391	-	1446	1438	1439	1401	1344	1288	1197
외환준비고(기말, 천억달러)	11.2	12.9	-	12.7	12.7	12.8	12.7	12.7	12.7	-
은행대출금리(%)	1.57	1.48	-	1.40	1.40	1.38	1.38	1.38	1.36	-

주1) '10, '11년 지표는 회계연도(전년4월~익년 3월), '12년 지표는 역년(1-12월)기준

2) 소비자물가, 실업율, 환율, 대출 금리는 기간평균

자료 : 일본경제신문, 재무성, 한국은행

□ 주요 연구보고서

- 『한국 신정권하의 경제정책과 대일경제관계』 일본종합연구소, 2월2일
*출처:<http://www.jri.co.jp/MediaLibrary/file/report/rim/pdf/6583.pdf>
- 『일본의 FTA전략 : 한국과의 비교』 미쓰비시UFJ리서치엔컨설팅, 2월4일
*출처:http://www.murc.jp/thinktank/economy/analysis/tenbou/tenbou_130201.pdf
- 『중국경제 전망과 일본의 대응』 중국종합연구센터, 2월5일
*출처:http://www.spc.jst.go.jp/experiences/rondan/nr13_002.html
- 『엔화환율의 적정수준』 일본종합연구소, 2월7일
*출처:<http://www.jri.co.jp/MediaLibrary/file/report/researchfocus/pdf/6600.pdf>
- 『일본의 재정은 지속가능한가? : 재정재건의 조건』 닛세이기초연구소, 2월8일
*출처:http://www.nli-research.co.jp/report/nlri_report/2012/report130207.pdf

② 주간 경제이슈 : 일본의 경상흑자, 적자화 가능성 예고

□ 2012년 경상수지 흑자, 2011년의 절반 수준

- 일본 재무성이 8일 발표한 2012년 경상수지는 4.7조엔의 흑자로 2011년보다 흑자규모가 거의 절반으로 축소
 - 이는 1985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2012년 12월은 처음으로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규모는 2,641억엔
 - GDP 대비 경상수지의 흑자 비율도 1980년대 중반 4%정도에서 2012년에는 1%정도까지 축소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무역수지적자 정착기조 때문임
 - * 미즈호코퍼레이트 은행에 의하면, 경상수지, 직접투자, 증권투자를 합산하여 엔화 환율에 미치는 자금수지의 기초적 수급규모는, 2012년에 약 3.2조엔의 엔 매도 초과로 5년 전 약 30조엔의 엔 매입 초과에서 크게 반전
- 일본의 2012년 경상수지흑자가 과거 최소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유럽재정위기를 배경으로 한 신흥국 경제의 감속과 日中 경제관계 악화 등 일시적인 요인이 큼

□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, 적자화 가능성 높아

-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아 재정 재건의 시급성을 더해주고 있음
 - 현재 일본의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적자와 소득수지 흑자가 일종의 줄다리기를 하는 구도임
 - 수출경쟁력 약화와 연료수입 확대로 무역을 통하여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한편, 기업들이 엔고로 늘어난 해외투자 배당 등이 유입되고 있음
 - * 2012년은 화력발전용 연료수입 증가와 對중수출 감소로 인한 무역적자 확대 요인이 겹침
- 중장기적으로 일본이 구조적으로 경상수지 적자국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음
 - 일본의 산업구조가 일본 국내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「made in japan」에서 해외 소비지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「made by japan」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임

□ 2016~2018년경 경상수지 적자로 반전 예상

- 버클레이즈 증권 관계자에 의하면,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일본 국내에 환원되는 흐름보다도 무역적자의 확대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2017~2018년경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정착될 전망이다
- 크레디스위스 증권의 한 이코노미스트도 일본은 2016년 경상수지적자국이 될 것으로 예상
 - 엔저가 가속되면, 일본기업들이 해외법인으로부터 배당 등 이익환류가 엔 환산으로 증가, 경상수지 중 배당이나 이자 등의 거래를 나타내는 소득수지가 확대할 가능성은 있음

□ 재정 건전화 시급

- 일본은 GDP의 2배에 달하는 정부부채를 안고 있는데도 일본의 장기금리가 남유럽처럼 급상승하지 않는 것은 기업이나 가계의 저축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국채를 구입하기 때문인데, 경상수지 적자는 바로 저축의 감소를 의미
 - 이 때문에도 일본은 국내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세제나 규제완화와 함께 재정건전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

3 경제정책동향

□ 경제산업성,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책으로 목표가격 도입

- 경제산업성은 전기자동차(EV)등 최첨단 에코카(친환경자동차)의 가격인하를 자동차업체들에게 촉구하는 제도를 금년도부터 도입
 - 2013~2014년도 차량가격의 목표를 정해 이보다 낮게 되면 휘발유자동차와의 차액 분 전액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보조해주기로 함
 - 다만 보조는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16년도 이후에는 보조 없이도 소비자가 비교적 부담이 적은 가격으로 에코카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보급을 본격화할 방침
 - EV나 PHV(플러그 인 하이브리드), 그린디젤차 등 차세대자동차를 위한 보조금은 2013년도 예산안에 300억엔을 계상
 - * 이제까지는 차세대자동차의 가격에서 동급의 휘발유자동차가격을 뺀 금액의 절반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국가가 보조
- 경산성은 2015년도 말까지 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2013~2015년도의 보조방식을 대폭 바꿀 방침임
 - 우선 차종별로 보조금이 없어지는 2016년도를 최종목표로 한 가격을 결정할 방침으로 연료비 등 구입 후 경비를 포함시킨 다음, 동급의 휘발유자동차와 같은 가격으로 할 예정
 - 실제 차량가격이 당해 연도의 목표가격을 하회하는 경우, 차량가격과 2016년도 목표가격과의 차액을 전액 국가가 보조
- 현행 보조금제도하에서는 2012년도에 소비자들이 약 280만엔의 자기부담으로 EV를 구입할 수 있으나,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2013년도의 부담은 약 30만엔 줄어들게 됨
 - 경산성은 자동차업체가 목표가격에 맞추어 판매가격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도록 지원

4 일본기업동향

□ 엔저의 설비투자 촉진효과

- 엔고의 시정과 함께 일본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
 - 일본 수출기업의 설비투자 촉진효과는 최근 2개월 반 동안의 엔저가 아베정권의 긴급대책에 포함된 2,000억엔의 보조금 효과보다 2배나 많은 것으로 시산
- 엔저는 해외수익의 엔 환산금액 증대, 수출기업의 외화표시 제품가격 인하에 의한 판매량 증가 등의 경로를 통해서 설비투자를 촉진
- 특히 설비투자보조금은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그것만으로는 설비투자를 회복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, 이에 지속적인 ‘금융완화→엔고시정·디플레이탈출에 의한 실질금리 하락→보조금을 크게 상회하는 설비투자촉진효과’가 중요하다는 지적

□ 스미토모화학, 일본 국내 에틸렌 생산 철수

- 스미토모화학이 2015년 9월까지 치바시에 있는 주력공장의 에틸렌 생산설비를 중단하기로 발표
 - 이는 일본 국내 자사공장의 에틸렌 생산설비를 중심으로 합리화를 추진, 100억엔 정도의 고정비용 절감이 목적
 - 동사는 2012년도에 제품시황의 악화로 적자를 낼 전망으로 채산성이 없는 사업을 축소하여 수익개선을 서두르고 있음
 - 동 공장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연간 38만톤으로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마루젠이나 미쓰이화학과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에서 조달을 늘릴 계획
- 그러나 해외생산은 향후에도 계속 확대할 방침인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에틸렌합작공장은 원료가 에탄가스로 일본 국내의 나프타(정제휘발유)와 비교하면 조달가격이 1/20~30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임

5 한국관련워치

□ 테이진, SK케미컬과 합작하여 자동차부품제조용 소재 생산

- 일본 테이진(帝人)이 열과 약품에 강한 PPS수지 시장에 진입하기로 발표
 - 테이진은 SK케미컬과 이달에 제휴, 한국에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2015년부터 생산, 취급품목을 늘려 자동차, 전자재료부품의 시장점유율을 높일 계획임
 - 7월 설립하는 합작회사는 자본금 약 4억2천만엔으로 테이진이 34%를 출자
 - * 연산 생산능력 12,000톤의 공장을 건설, 설비투자 규모는 발표하지 않았으나 2024년도에 약 300억엔의 매출을 목표
- 테이진은 유리보다 200배 이상 내충격성을 가진 폴리카보네이트 등을 취급하는 회사로 첨가제 외에 소재의 혼합기술 분야에서 뛰어나, 혼합기술을 필요로 한 SK케미컬과 제휴하게 된 것

□ 자동차, 韓日 재역전 가능성

- 일본경제신문에 의하면 최근 일본차의 아성을 위협할 만큼 급성장한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지난 1월 디트로이트 북미자동차전시회에서 연비나 디자인 면에서 우수성을 어필하는 포인트가 떨어졌다는 것
 - 그 이유로 미국 환경보호국(EPA) 조사로 현대차의 연비성능 과대표시가 알려지게 된 후유증으로 현대차의 브랜드 이미지가 저하되었다는 점을 지적
 - 반면, 엔저로 일본차의 가격경쟁력이 되살아나는 가운데, 일본차 킬러인 현대차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금년에 주목해야 할 포인트 중의 하나라는 것
- 일본차는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수난이 이어져 왔으나, 최근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엔저와 일본차의 상품력이라고 평가